

북제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김 창 식*

1. 서 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도시로 나갔던 일부의 지역주민들이 고향으로 U턴하고 있으나 당장 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일자리'가 적고, 또한 산업활동이 정체되어 이를 회생시키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을 찾는 데는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사람은 일을 해서 그 반대급부로 수입을 얻고, 그 소득의 일부를 소비에 충당함으로써 지역경기가 활기를 띠게 된다. 따라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기회의 증대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역산업을 재생시켜 나가는 일이고, 둘째, 새로운 미래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며, 셋째는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일이며, 넷째는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하기 쉬운 재생방법은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왕도는 지역주민의 결집된 힘에 의해 지역산업의 재생과, 시대적 조류에 맞는 신 산업을 일으키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역으로 유치한 기업이 아무 탈없이 지역에서 환영받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일단 유치한 기업이 말썽을 일으키면 오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히려 지역의 애물단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산업과 신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지역 토착성과 비전을 가진 기업이 대거 유치되면 고용기회가 확대되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기업유치에 의해 고용기회의 창출, 기술이전, 지역 소득수준의 향상, 세수증대 등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역의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은 지역의 자원성과 사회특성에서 적응하고 발전을 하는 지연산업(地緣産業)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재생시켜 새로운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산업의 내발적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서 지역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사를 지역에 두고 있으면서 경영자는 토착성이 강한 지역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군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지역의 사업소나 주민을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 소매업 등이고, ②기념품과 특산품의 소비재를 어느 특정지역의 산지를 형성해서 생산하고, 그것을 국내·외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지역전통산업이며, ③산지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 원재료 등 생산자원이나 시장성 측면에서 지역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산업이 성장 동력을 얻고 지역 활성화의 주역으로 위상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 관여되는 중소기업 경영자, 상공인단체, 의회 및 행정 등 각 경제주체의 애로와 고충이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를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이 도전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발표는 주권재민의 대의명제를 살리면서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찾고자 한다.

특히 지역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짚어보고, 내부적으로는 지역산업의 진전의 포괄적인 회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서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주체의 관광자원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연구 발표는 침체된 북제주군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묘약'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의회·산·관·학 등, 실행주체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발표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II. 지역산업의 활성화 방향

1. 지역의 개념과 정의

일반적으로 '지역(地域)'이라는 용어는 지리적 공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공간의 범위'라는 표현으로만 지역의 용어를 말끔히 해석할 수는 없다. 선행적으로 지역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지리적 공간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잘 인용되는 것이 등질성(等質性)과 결절성(結節性)을 들 수 있다. 이 등질성과 결절성은 관념적이고 이념적으로 해석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인 읍 면 동(리), 도시 군 단위를 지역이라 보고, 더 나아가서 광역단위를 포함한 '행정구역'을 상기하면 등질성과 결절성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되리라 본다.

등질성은 어떤 넓이를 가진 토지의 내용 속에 어디를 봐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적인 조건이 동질이고, 더욱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생활습관에 따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자체가 일체감과 집합적 귀속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이것은 기초단체의 시 읍 면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결절성의 지역개념이다. 이것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어느 부분도 이 '지역' 속에 어딘가 다른 부분과 밀접한 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체로서 번영을 이루는 것을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컨대, 하나의 도의 경우 도청소재도시와 그 외의 시읍면과는 행정측면에서 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상 그 외의 시읍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월 몇 회, 쇼핑이나 음악회, 미술관 등을 왕래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등질성이 어긋나지만, 결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이라는 말은 지역주민, 지역경제, 지역산업, 지역사회, 지역문화, 지역생활 등 여러 가지 복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공간적 넓이를 가진 지역 안에서 경제나 산업, 사회, 문화, 생활 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은 갖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산업의 얼굴, 사회의 얼굴, 문화의 얼굴, 지역주민 생활의 얼굴이라는 형태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이란, 어느 箇所나 토지의 일정구역을 의미하며, 그 箇所나 토지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 範圍區域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산업의 재평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감에 있어 지역산업을 한번 회고해 보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점은 지방화 시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발상이라 하겠다. 지방의 독창성을 세계의 중심축으로 서서히 진입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특성과 주민의지 결집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하고, 경제적 기반확립의 기본에는 지역산업의 위치가 확고히 정립되어야 한다.

원래 지역산업의 운명은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지방자치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성미 넘치는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철학 내지는 이념을 표방하는데서 지방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경우에도 지역이

중앙본사 '지점경제'가 아니고, '본점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담당자가 바로 지역에 뿌리박은 지역산업(Local Industry)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은 실제로 지역내에서 다종다양한 산업이 포함되고 있다. 특정의 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연산업(地緣産業)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기업에 오로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밀착형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 유통소매업 등을 비롯하여, 산지는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과 원재료나 시장성의 측면에서 끈끈하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참신하게 발전하는 중소기업군이 이에 포함되고 있다. 농림어업이나 소위 유통서비스 및 관광업도 지역산업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생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산업의 고유 기술이 예상이상으로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세계화시대의 국제비교를 해 보면 과연 가치있는 귀중한 고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둘째, 현재의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실제로 지역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리더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역산업의 기초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투자되는 사회기반시설이 균형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3. 지연산업의 재평가

지연산업(Native industry)은 신토불이의 등질적 개념이다. 지연산업은 지역주민에 의해서 지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지역내에서 생산, 가공,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전통산업이다. 즉 지연산업은 지역자본을 중심으로 영위되는 중소기업군이며, 노동력이나 기술, 원재료 등 경영자원이 지역내부에서 조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연산업으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산물 등

을 주원료로 한다. 둘째, 산지형성이 일정지역에 집적되어 지역자본에 의해 경영되어야 한다. 셋째, 자본이나 노동력, 기술 등을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 넷째, 상품의 원재료와 소재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지만, 이것을 지역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로는 내·외수요 전환이 가능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상기할 때 지연산업은 지역의 전통산업으로서 영세하지만, 관광과 연계되었을 때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강력한 파워를 형성할 수 있다. 지역산업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연산업의 대외적 환경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방치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기사희생을 위해 새로운 수요변화와 경제현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재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1)지연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수요구조의 변화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생산력이 비약적인 확대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의해 국민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소비수요의 질과 양이 크게 변화

◇공급측면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고등,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계승 전무, 자금난 등

◇기술혁신의 변화

기계화, 자동화, 시설혁신의 파고가 덮쳐오면서 전통적인 산업기술이 붕괴되고 있고, 산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공장자동화 로봇화 추진으로 지연산업의 영세기업은 퇴출되고 있다.

◇경쟁측면의 변화

내외적으로 동업종 동질의 상품생산자의 출현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최근 고급품은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수입품에 밀리고, 중저가품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수입품에 밀리는 상황이다. 농산품은 FTA의 체결에 따른 수입품목에 밀려 진퇴양단의 상태이다.

수요의 양적 확대가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생산물의 재고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산지간, 기업간 가격경쟁은 치열하다.

◇산지의 2극 분화 심화

환경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 성장산업을 개척하는 산지와 환경변화라는 급격한 황폐에 밀려서 존립기반 根底에서 붕괴해 버린 구제불능의 산지로 구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지연산업에 관계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시설장비 노후화 및 진부화
 - 토지가 상승에 의해 설비확충 한계
 - 투자금융의 비용부담으로 조달에 한계
 -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
 - 종업원 노무대책상 인건비의 고등, 고령화, 후계자 부족 등 인력난
 - 경영체질 허약성으로 수익률 정체 및 악화 현상
 - 수익금은 대금회수의 장기화나 불가능에 대해서 약하게 대응한 것
 - 시장계획에 따른 시장정보 부족, 업종의 폐쇄적 경향 등
 - 장래 산업발전에 대해 기대감이나 실의에 빠지거나 무관심인 사람 속출 등
- 다른 한편으로,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으로는 상품의 내수소비와 수출에 따른 현실적 문제가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산업의 중소기업들은 소비형태의 생산구조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선은 기계화 및 자동화에 의한 생산수단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또한 저임금구조의 생산에서 고임금구조의 생산으로 변화되면서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투자금융의 확대는 중소기업이 도약하는데 필요한 윤택유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투자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쪼들리면서 조업이 중단되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시설투자가 활기를 찾지 못하면 생산기술이 늦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

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수출형 지연산업은 우선은 환율이 포인트이다. 원고현상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수출품의 고가문제에 직면하여 신규수출계약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실시한 원고현상에 의한 수출영향조사에 의하면 최근의 수출형 산지에서는 적자발생 중소기업이 환율관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수형 산지에서도 고용불안정과 소비정체의 원인으로 생산량 재고가 넘쳐나면서 일시 조업중단을 단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연산업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또한 수출형 산지가 내수의존형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동업자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의 돌파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상품의 소비지향적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점에 도달에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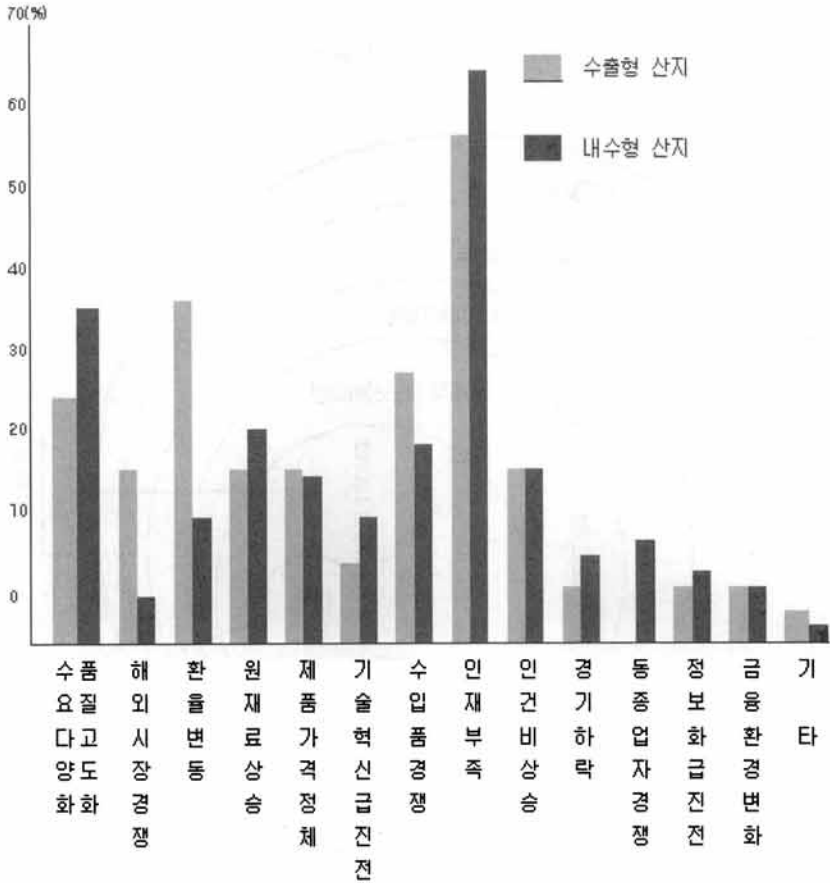
3)지연산업 재생의 기본적 방향

최근 현대인은 웰빙 바람을 타고 생활의 질과 보건 향상에 관심이 기우러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행태에 부합되는 제품생산과 유통소비가 일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은 수입형의 고가격경쟁에서 탈피하여 산지 직판가격으로 승부를 겨루어 나가야 하는 특성화 재생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세부전략으로는 제품구성의 다양화, 제품포장의 규격화, 신제품 전시회·발표회, 산지제품의 현대화, 타산업과의 연대화, 인력정보의 시스템화, 경영자원의 집중화, 교육 연구기관과의 신제품 개발기술 연대 등을 들 수 있다.

2. 지연산업 및 지역산업의 기업 환경 이해

〈그림 1〉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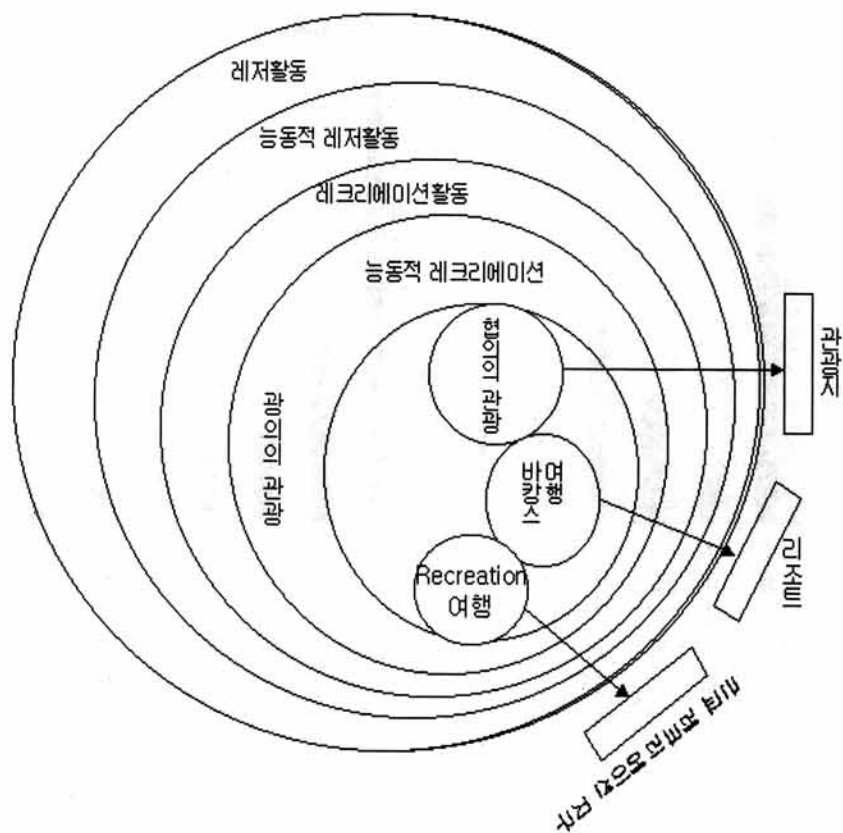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지연산업의 환경, 2000년 4월

III. 지연산업과 지역관광의 연대 전략

1. 레저·레크리에이션·관광현상의 이해

〈그림 2〉 관광의 위치



2. 지역관광(Regional tourism)의 위상

지역관광(Regional tourism)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 자원이나 고유한 문화 및 생활양식을 토대로 주민의 주체적 참가에 의해 성립되는 관광형태이다. 관광객의 관광행동은 지역을 두루 이동하면서 즐기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일정지역에 있어서는 관광 그 자체가 지역관광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관광은 어느 일정 지역에서 주민과 관광객 교류의 총체적 관계에서 성립된다.

그러나 관광형태를 보면, 지역마다 존재하는 관광지가 개성이 결여되어도 지역관광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지역특유의 것, 독특한 관광형태, 특이한 자연 문화의 전개 등도 넓게 포함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 형태에 따라 지역관광의 범위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관광지는 공통적으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개발붐에 의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인문경관 등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난개발로 인해 정작 지역관광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예가 많다. 지역관광은 관광지의 주체를 이루는 경승, 역사, 풍물, 인정 등 특유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향토색을 어떤 방법으로도든 간에 살려서 관광수요를 환기할 수 있는 방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 독특한 토산품과 명품 등은 해당지역의 얼굴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을 쉽게 얻기 위해 일부러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토산품이나 명물요리 명칭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떠올라 지역이 널리 알려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들 특산품들은 지역관광을 선도하는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관광이 성공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관광, 지역산업과 관광과의 유기적 연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관광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각 분야별 지역경제주체의 단결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지연산업과 지역관광의 연대

최근 각 지역의 관광지에 있어서 관광객의 욕구에 순응한 상품개발이 다양화되고 있다. 관광객의 구매동기에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넘쳐나는 상품에는 쳐다보지도 않으려 한다. 관광지 고유의 토산품을 얻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의 특산품이나 기념품은 토산품으로서 관광객의 여행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지역이미지 고양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여행지에서 구입한 기념품이나 특산품은 생활용품의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선물로 널리 애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상품생산은 지역의 지연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지연산업과 관광산업의 상이한 점은 상품생산과 상품판매에 있다고 할수 있다. 지연산업은 유형적인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중시하지만, 관광산업은 무형적 상품생산과 판매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연산업은 당연 관광산업으로서의 경영의식이 희박하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지역에서 관광토산품이나 특산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관광지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면 지역상품의 구매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이미지가 홍보되며, 특히 전통적인 지연산업의 경우 수공예기술이 그대로 전수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산업적 문화유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기회는 도시생활자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다.

현상학적 사회학자인 A.숏트에 의하면 지리적인 의미가 아닌 자연마을, 거주, 모국어, 연인, 친구, 사랑스런 아름다운 풍경, 어머니의 맛, 친숙한 생활용품 등 사소하지만, 지역의 부존자원에서 만들어져서 애착이 담겨진 특유의 생활양식을 '고향'이라 하였다. 한편 소비측면에서 볼 때 현대인의 소비행태는 상품을 구매하여 마구 낭비하는 타성적 소비문화가 아니라 자신이 가치관이나 취미감성에 맞는 제품을 입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산업과 관광산업 모두 사람, 정보, 지식, 디자인 등 소프트적인 경영자원에 의해 발전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

전술했듯이 지연산업은 관광산업은 모두 인간적 요소, 즉 소비자 집적이 안되면 성립할 수 없는 산업이다.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지도나 저리자금융자 및 지원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연산업은 관광산업과 상생의 관계에서 지역경제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지역산업으로 소비재공급원의 관광산업으로서 각광받게 된다.

지연산업을 관광산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산업체질의 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경영의식의 개선, 시장정보수집의 과학화, 생산공정의 전문화, 인재개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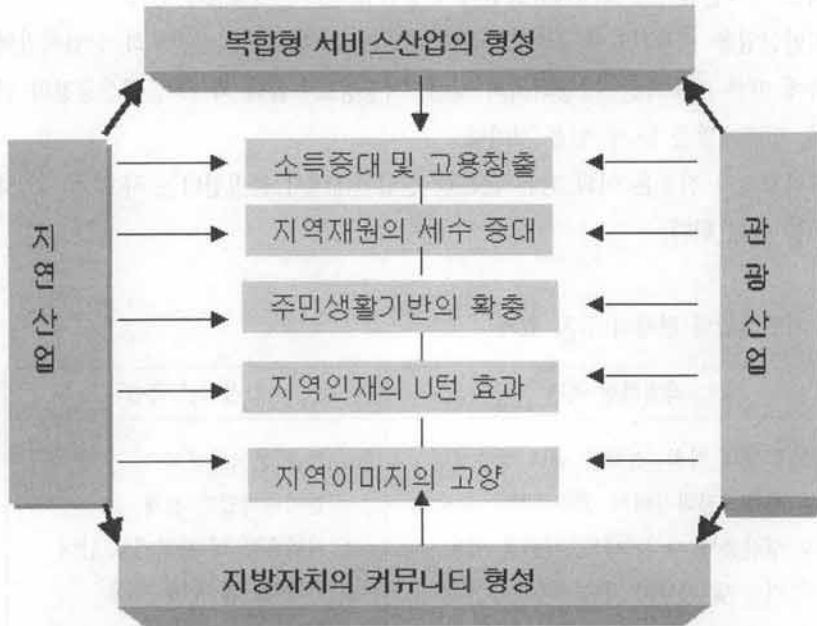
지역경제의 진흥은 이와 같은 끈끈한 산업연대에서 출발한다는 사고방식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지연산업의 관광객 유치 효과

직접적인 측면	간접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내 시찰, 견학을 통해 상품설명 ○ 제조공정과정에서 상품차별화 숙지 ○ 생산품의 시식, 시음, 시공품 이용 ○ 기술 및 기능의 학습지도 ○ 실험 및 실습장을 통해 기술전수 ○ 기업의 PR 및 판매개척 이벤트 기획 ○ 종사원과 간담회를 통해 친숙마케팅 ○ 소비자클럽 형성에 의한 고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전시이벤트 ○ 간이숙박업의 전개 ○ 지역홍보 및 관광지로 안내 ○ 지역특산물 구매 안내 ○ 지역 인프라 시설 이용 안내 ○ 문화축제 참가 유도 ○ 재래시장 안내 ○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지연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효과

〈그림 3〉 지연산업과 관광산업의 상관관계



5. 지역의 관광개발 정책

1) 관광지 라이프사이클의 이해

일반적으로 관광지는 매상고(관광객 지출액)와 수익, 시간에 의해 개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를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따라서 관광산

업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지역 관광지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분석하여 재생의 길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주요 변수로서 관광객 입장객수의 성장률, 경쟁대상의 관광지 수, 관광지 대중화율, 재방문 비율, 새로운 관광지 등장, 신규투자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개척기에는 새로운 관광지로서 관광객에게 그 존재나 양호함이 아직 숙지되지 않은 단계이다. 따라서 개척 광고를 비롯해서 매스컴을 통해 퍼블리시티, 새로운 관광지전 개최나 팸플릿 제공 등, 프로모션활동에 주력하고, 또한 여행업이나 교통업 등과 끈끈한 제휴를 통한 고객유치가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 고소득자 층, 소수의 단체 등의 관광객이 서서히 신장세를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매상은 원만한 상태를 유지한다. 관광객유치의 판촉경비나 관광시설확충에 많은 건설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관광지의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오히려 적자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둘째의 성장기는 관광지의 양호함이 인지되어 구전에 의한 평가가 좋고, 각양각색의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이다. 거기에 동반해서 경쟁관계의 관광지가 관광수요시장으로 과도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관광지의 차별적 유리를 확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경쟁적 광고에 의한 소구점(訴求点) 캠페인이나 관광지 매력을 알차게 유지관리 하는 한편, 채널 정비, 가격인하, 판매촉진 강화 등의 전략을 펼쳐나간다. 관광지 수익은 이 시기의 중간시점에 최고에 달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용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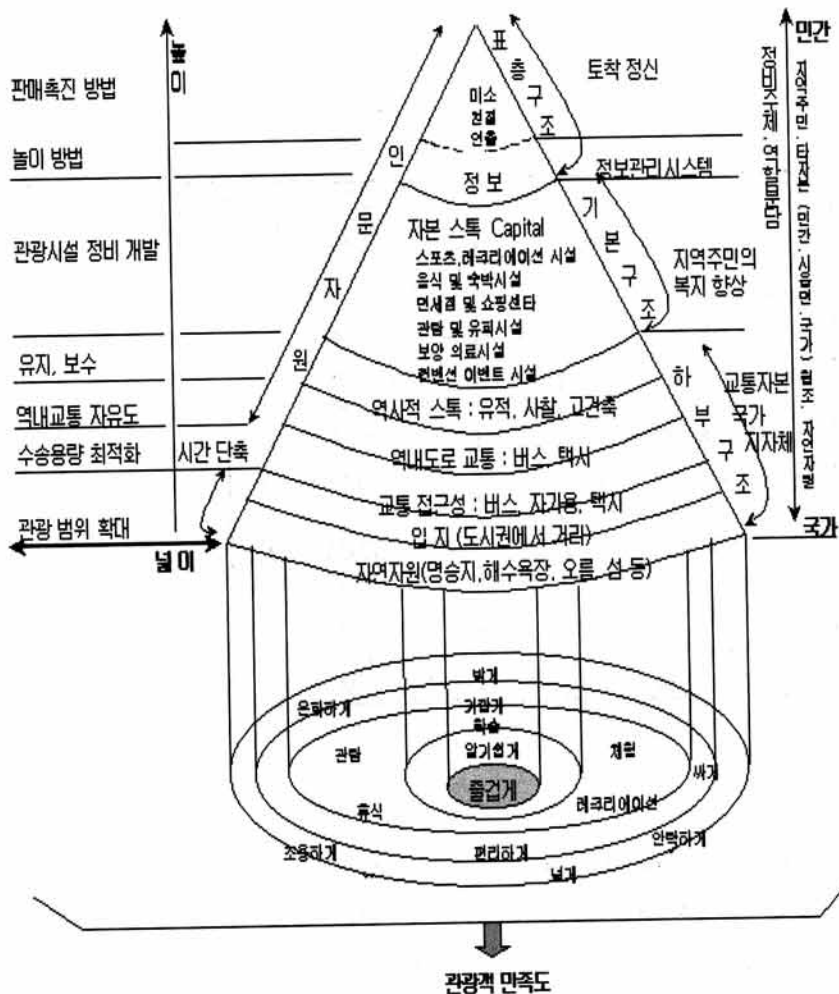
셋째, 성숙기는 해당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미 한번씩 방문한 상태의 평행적 성장단계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는 신규 관광객은 드물고, 대부분 재방문 관광객이어서 스스로 관광문화를 평가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재방문객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관광시설의 건설, 새로운 이벤트의 개최, 자연적 인문적 관광 자원의 발굴, 지역 고유의 매력 재발견 등 지금까지 없는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장세분화에 의해 신규 관광층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들 방법에 성공하면 이 성숙기를 재성장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서비스 정책, 채널 재편성, 이미지 광고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성숙단계는 또한 경쟁은 심하지만, 경쟁지위의 관계가 확실하여 신규 경쟁관광지의 참

입은 용이하지 않다. 관광지의 매상고는 지속적으로 수평을 그어 나가며, 또한 수익은 성장후기와 같이 점차 감소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쇠퇴기는 해당관광지가 질리거나 싫어지고, 또한 신규 관광지의 출현에 의해 관광객이 감소경향을 나타내는 단계이다. 관광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도 효과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될 때로 되어라 하는 식으로 방치하기 쉬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코스트관리문제와 함께 언제 관광지로서 철회하는 것이 좋은 지 타이밍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광지의 매상고는 하강하고, 그 수익도 저하된다. 이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재도약 의지가 살아나지 않는 한 그 지역자체가 황폐화되어 공동화 경향을 맞이하게 된다.

2) 발전 지향적 관광개발 모델 개발

〈그림 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모형



IV. 북제주군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동향

1. 국내 경제 전망

〈표 1〉 국내 주요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02	2003		2004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성장률	6.3	2.8	3.6	3.1	4.6	6.4	5.5
민간소비	6.8	-0.7	-1.7	-1.4	2.3	6.2	4.3
총고정자본형성	4.8	4.1	2.3	3.2	5.6	6.3	6.0
(설비투자)	6.8	0.4	-2.6	-1.5	8.4	11.3	9.8
(건설투자)	3.3	7.6	7.6	7.6	3.2	3.0	3.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4.9	13.6	18.8	15.7	10.9	12.0	11.5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16.4	12.6	6.8	9.7	13.9	16.4	15.3
통관기준 수출입							
수 출(억달러)	1,625	891	1,026	1,919	1,023	1,131	2,154
(증가율)	(8.0)	(17.4)	(18.6)	(18.1)	(14.8)	(10.0)	(12.2)
수 입(억달러)	1,521	859	922	1,781	963	1,064	2,027
(증가율)	(7.8)	(21.0)	(13.7)	(17.1)	(12.1)	(15.4)	(13.8)
수출입차(억달러)	103	32	104	138	60	67	127

자료) 산업연구원 2004년 국내경제 전망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경제성장률은 3.1%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2004년에는 5.5%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전망으로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로 2004년도는 연간 전체로 6% 증가가 예상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호조의 지속으로 무역흑자 127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04년도의 소비자물가는 2.9% 낮은 상승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호조와 국내경기 침체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안정적인 성장유지정책과 미시정책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은 수출

관련 산업의 호조를 내수관련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둘째는 청년실업 등의 실업현안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셋째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원화 절상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 움직임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 전국의 고용 동향

구 분	2003.2월	11월	12월	2004.1월	2월
〈계절조정후〉					
· 취업자수(전기비증감, 만명)	-2	8	8	31	11
· 실업자수(만명)	71	83	81	78	79
(실업률, %)	(3.1)	(3.6)	(3.5)	(3.3)	(3.3)
· 경제활동참가율(%)	61.6	61.5	61.6	62.2	62.5
〈계절조정전〉					
· 취업자수(전년동기비증감, 만명)	8	4	4	37	51
비농림어업	7	17	24	48	60
(제조업)	-8	-1	2	11	12
(서비스업1))	2	11	15	33	44
농림어업	1	-14	-19	-11	-9
· 실업자수(만명)	82	79	83	85	90
(실업률, %)	(3.7)	(3.4)	(3.6)	(3.7)	(3.9)
〈15~29세 실업률〉	8.7	8.0	8.6	8.8	9.1

주 : 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외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2. 제주지역 경제동향

▸ 제주지역의 과거 3년간의 산업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총생산(GRDP)은 연 평균 5%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의 2003년도 3.1%성장보다 앞서고 있으며, 2004년도 전망치 5.5%보다는 낮은 성장치라 할 수 있다.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을 포함한 1차산업은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관광서비스업을 포함한 3차산업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구조도 서비스업의 3차산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건설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과 고용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산업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 제주지역 경제 동향

〈표 3〉 제주지역 경제 동향

(단위:%, 10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GRDP(10억원)	4,809.5	4,858.8	5,374.1	
1인당 소득(천원)	9,175	9,206	11,170	
실업율	1.7	2.2	2.1	
산업구조	농림어업	22.4	16.7	17.7
	관광업	3.8	3.8	3.6
	건설업	13.0	13.1	12.4
	서비스업	60.8	66.4	66.3
고용구조	농림어업	26.9	25	22.9
	관광업	3.7	4.5	4.8
	건설업	9.4	9.5	9.2
	서비스업	60.0	61.0	63.1

자료)한국은행제주본부, 제주지역 경제 동향 2004년 4월

상공회의소, 제주지역 경제 동향 2004년 4월

〈표 4〉 연도별 관광 수입

(단위: 억원)

연도별	관광 수입			비 고
	관광객수	금 액	전산업대비 점유율(%)	
1986	1,425	1,438	17	감귤수입(1,416) 추월
1996	4,144	10,179	25	1조원 돌파
1997	4,363	10,759	24	1차24% 2차4% 3차72%
2000	4,110	14,975	31	
2002	4,515	15,265	28	동년 GRDP 5조3,741억원
2003	4,913	15,661		도민총생산 통계조사 정리 중
2004	5,100	17,397		목표 달성 계획

주) 자료 : 제주도 관광진흥과, 제주지역 관광산업 동향, 2004.4

2004년도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목표는 510만명, 1조7천4백여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2003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4,913,390명이 입도하여 1조5,66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러한 실적은 사상 유래없는 기록이다. 이는 "사스" 발발로 인해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로 집중되었으며, 컨벤션센터 개관, 고급민박 및 펜션의 공급 증가 등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주 5일 근무제 부분 시행 등으로 국민들이 여가문화 확산으로 국내여행시장 규모가 팽창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반면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이라크전 발발, "사스"의 영향 등으로 해외여행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제주, 대만간 정기성 전세기 취항으로 대만관광객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9월 이후에는 중국인 관광객은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일본인 관광객은 점차 예년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다.

3. 북제주군 지역의 경제 및 산업 동향

〈표 5〉 면적 및 인구 (2003.12.31 현재)

면적	세대수	인구수(명)			자연마을	행정리	반
		계	남	여			
772.31	36,526	102,189	51,522	50,667	276	96	1,383

* 유인도6, 무인도 54개(13.7km²)

〈표 6〉 재정자립 현황

구분	재정자립도	투자비율	경상비율	비고
북제주군	21.1%	76.0%	18.6%	
군 단위 평균	19.1%	66.6%	27.25%	

〈표 7〉 예산 규모

▷세입 : 3,187억원

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203(7)	486(16)	70(2)	821(28)	715(24)	579(19)	117(4)

▷세출 : 3,187억원

특별회계	공영 개발	도시 계획	수도 사업	의료 보호	농공 단지	주민 소득	주택 사업	주차장	군립 공원	발전소 주변
		8	10	141	2	5	21	2	4	4
인건비		경상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기타		
210 (7)		292 (10)		1,833 (61)		386 (16)		266 (9)		

〈표 8〉 2003년도 부문별 수출 실적

(단위: 톤, 천불, %)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증 감 율	
	물 량	수출액	물 량	수출액	물 량	수출액
농 산 물	13,524	5,637	8,387	5,752	△38.0	2.0
수 산 물	2,809	19,456	2,117	16,518	24.6	△15.1
축 산 물	1,928	2,164	4,165	4,867	116.0	124.9
공 산 품	1,223	3,052	1,045	3,409	14.6	11.7
임 산 물	30	480	35	499		
합 계	5,990	30,789	7,362	25,293	△19.3	0.8

주) 주요 수출국 : 일본73%, 필리핀16%, 캐나다6%, 러시아2%, 미국1%, 기타2%

〈표 9〉 북제주군 1차산업 경제 현황

(단위: %, 억원, 호)

2003년도 기 준	계	농업			축산	수산
		계	일반	감귤		
조수익	6,642	3,213	2,534	679	1,904	23
구성비	100	48			29	3,215
가구수	21,102	11,989			5,898	15
2002 조수익	5,585	2,534	1,982	552	1,607	5.6
전년도대비 2003/2002	18.9	26.8	27.8	23.0	18.5	

자료: 북제주군 농정과, 산업경제동향 2004년 1월

2002년도 제주도 전체 관광수입은 1조5,265억원을 벌어들였다. 동년 북제주군 농수산물 수출액 총액 3,031만불 (한화1조5,372만원)로 거의 같은 소득을 올렸으며, 이것은 북제주군 농수산물 총 수출액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북제주군은 농수축산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 한차례 FTA

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면 제주의 지연산업인 농축수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관광산업부문은 관광개발투자사업의 유치촉진으로 농림어업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대안으로 지역산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적 청정 농·어업을 관광산업과 유기적 연대체계를 정비해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북제주군의 지역관광개발 현황

〈표 10〉 관광산업 개발사업 추진 동향

업종	개소	운영중	공사중	사업승인	사업미승인	사업예정자지정
관광지구	9	9				
골프장	17	3	5	1	4	4
종합휴양업	4			4		
관광호텔	7	5	1			
콘도미니엄	23	9	9	5		
휴양펜션업	19	3	5	11		
관광지	9	9				
합계	88	38	20	21	4	4

자료)북제주군 관광교통과, 2003년 관광산업 개발사업 추진동향

5. 주요 추진 계획

〈표 11〉 리조트 개발사업

구분	계	골프장	종합휴양업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휴양펜션업
개소	70	17	4	23	7	19
사업비(억원)	23,747	10,015	8,631	3,535	1,381	200

〈표 12〉 관광개발지구 개발사업

구 분	합덕	세화 송당	만장굴	원동	묘산봉	교래	곽지	제릉	차귀도
면 적(km ²)	465	2,363	2,528	640	4,665	504	1,113	3,025	1,642
투자액(억원)	1,074	10,534	1,201	4,770	8,551	697	1,596	681	1,563

주) 총면적 16,947km², 투자액 30,667억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북제주군조천읍교래리 산119번지 일대(군유지)
- 조성면적: 1,000천평(1단계 3천평)
- 주요시설: 동굴형전시관, 수석전시관, 야외전시장, 생태공원 등
- 사업비: 1,852억원(1단계 308억원, 2단계 1,544억원)
- 사업기간: 1999년~2020년(1단계 1999년~2005년, 2단계 2006년~2020년)

◇투자비 조달 계획

〈표 13〉 연도별 투자 계획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30800	11721	10433	4625	4021
중앙지원	15,680	6780	3800	2600	2500
지방비	15120	4941	6633	2025	1521

〈표 14〉 해수욕장 정비사업

해수욕장명	사 업 비			투자기간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7,084	2,937	3,247			2004년 투자액 900억
협 계	3,392	1,532	1,460	1985~2003	샤워탈의장 휴게시설 등	2004년 투자액 400억

해수욕장명	사 업 비			투자기간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김녕	3,082	1,352	1,430	1993~2003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취사장, 관리사 종합휴게소 등	2004년 투자액 300억
곽지	595	53	342	2002~2003	화장실, 주차장 모래압반 제거 음수대, 노천탕	2004년 투자액 200억
하도	9		9	2003~2004	샤워탈의장 등	
종달	0.9		0.9	2003~2004	급수탑 등	
우도	6		6	2003~2004	유게시설 등	

주) 북제주군 관광교통과 관광산업추진동향 2003년 12월

〈표 15〉 7대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

사 업 별	사업장위치	조성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쇼핑아웃렛	서부관광도로변	5만평	731억원	2003~2007	명품장(150) 특산품(30~80) 부대시설 등
생태 공원	구좌읍 송당	1,200만평	625억원	신화역사공원 조성후	희귀식물 공원 오름 생태학습
합 계		1,205만평	1,356억원		

자료 : 북제주군 관광교통과

6. 북제주군 지역의 산업재생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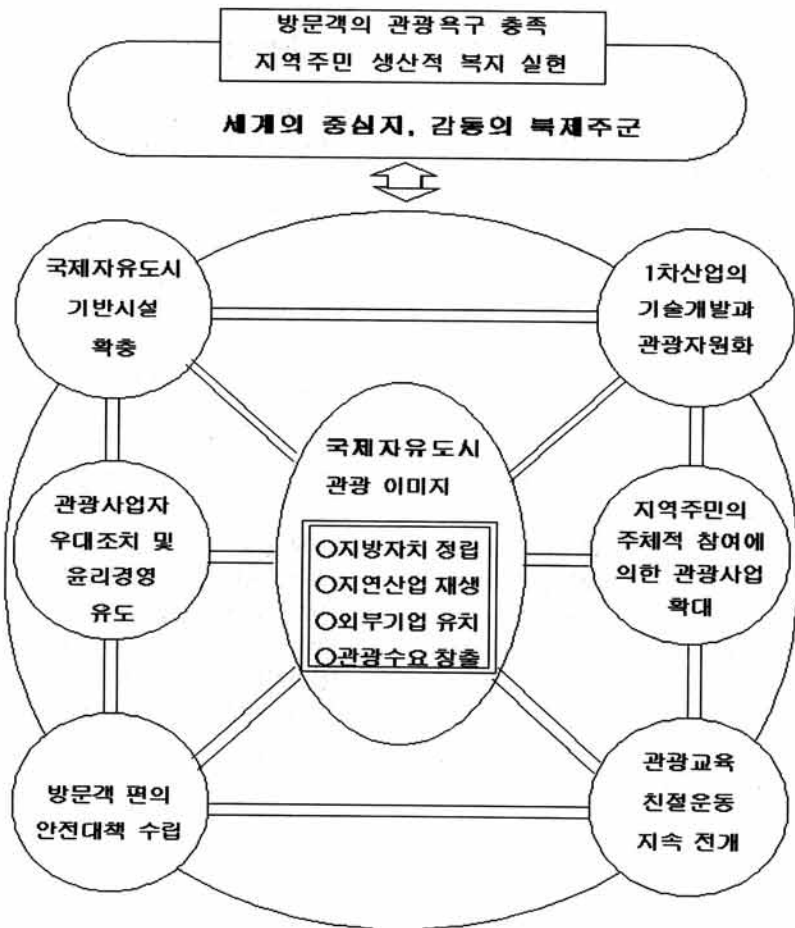
〈표 16〉 산업별 주요 현안 문제

산업별	문제점 요약
◇ 1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용작물 수급 불안정(입지, 품질, 품목, 생산량 등) · 발작물 인프라 미 구축 - 체험형 동선코스(하우스) · 수산업의 관광사업 미흡 - 어촌계 특화사업 미흡 · 재해방지 대책 미흡 - 노지작물 태풍피해 심각 · 청년노동력 부족 - 1차 산업 인력양성 불완전
◇ 2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 의존도 상승에 따른 경제 불안 가속화 · 지역산업과 연대성 미흡 - 기념·특산품, 토산품 등 · 제조업 인프라 미 구축 - 입지, 교통, 거주, 환경 등 · 1차 · 3차 산업 특화상품 제조기술 미흡
◇ 3차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물 유통구조 불확실 - 특산물 쇼핑센터 미구축 · 특별법 특혜 무색 - 세계혜택(골프장 요금) · 투자유치 관광산업 일변도 · 국제자유도시형 관광정책 미흡 - 환경, 경관, 문화 등 · 대규모 외자유치 관광사업 의존 - 골프장 집적(어음) · 관광서비스 교육 연대감 미흡 - 지역노동력 누실 현상 · 주민주체 관광사업 위약 - 민박, 펜션시설 불합리 등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협정 대응책 미흡 - 지자체 공동 대응 노력 미흡 · 교통통신 경쟁력 열악 - 운송비 부담, 가격경쟁력 대두 · 지연산업 재생 미흡 - 업종전환, 새마을 정신 퇴색 · 산업정보시스템 미구축 - 영농, 시장정황, 신상품 개발 · 관광홍보 마케팅 미흡 - 퍼블리시티, 지역홍보망 한계 · 산관학의 연대체계 미흡 - 플랜, 실행, 평가, 지원 등 · 기업도시특별법, 조세특례법, 경제특구지구 등 외자유치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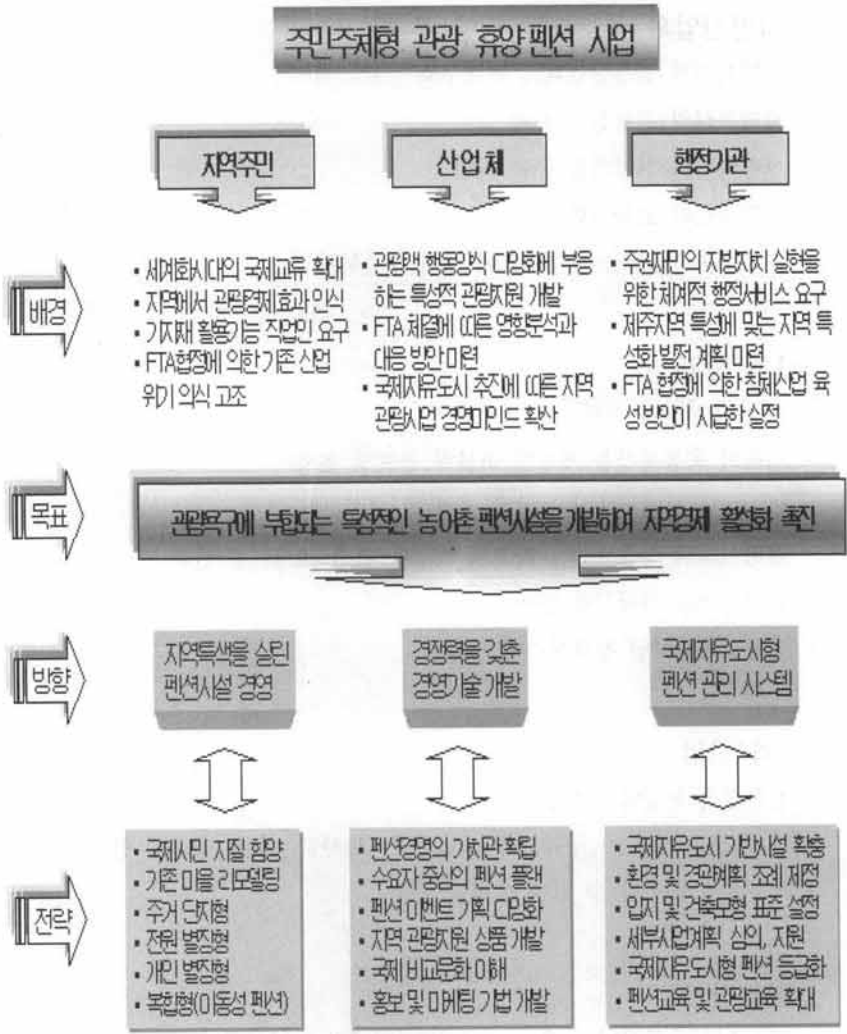
V. 북제주군의 국제자유도시형 지역 진흥 전략

1. 지역산업의 진흥 전략

〈그림 5〉 지역산업의 목표와 방향



2. 주민주체 관광사업 육성



3. 산업별 주요 진흥 정책

◇지연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부재

- 지연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구축
- 지역특성의 관광산업 유치
- 산관학연의 산업기술 공유 확대
-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
- 농·수·축산물을 관광수요에 대처(수출물량 조절)

◇1차 산업

- 청정 축산단지 개발
- 지역의 공동목장을 계절별 퍼블릭 골프장 조성
- 민·관 사업주체의 농어촌 민박 및 펜션마을 조성
- 웰빙시대의 청정브랜드 약초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전환
- 관광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 영농·관광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산업

- 친환경적 농공업단지 정비
- 지역 특산물 개발 = 주류, 맥주, 음료류, 과자류, 의류, 공산품 등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공급

◇3차 산업

- 도·소매 유통서비스 개선(대형마트, 면세점과 경쟁체계 구축)
- 관광상품 신속배달을 위한 택배서비스 개선
- 재래시장 쇼핑문화 개선(결재방식, 친절서비스, 위생모와 위생복 착용)
- 금융용자 편의 제공(개인거래실적 및 발전계획서에 의한 무보증 용자)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익법인 고용 능력 개발원 설립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 환경 마련

- 관광개발후보지의 재평가에 의해 내발적 관광산업단지 조성
- 내발적 관광산업단지내 물리적 기술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해 우대조치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진흥특별법 제정에 의한 재정지원지구 지정
- 지방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골프특구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우대
- 지역토착화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일정비율 지방세 감면 조치

4. 인력개발정보센터 도입

일본은 2002년 12월13일에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법에 기초해서 2004년 3월1일부터 독립행정법인고용·능력개발기구가 설립되어, 고용·능력개발기구는 독립행정법인고용·능력개발기구로서 새롭게 탄생하였다. 여기서 독립행정법인고용·능력개발기구 지역별 인력개발센터 건립이 쉬워졌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고용개발에 의한 원조금 지급
- ◇중소기업 고용관리 개선 조성금

5. 북제주군 지역관광산업의 진흥 정책 개선

1)관광자원개발

첫째, 지역별 전통문화 역사를 살린 '지역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추진과 함께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적 관광개발을 도모하고, 농·산·어촌의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공연, 전시, 축제, 스포츠 등 다양한 지역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한다.

셋째, 국민관광의 사회적 복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배낭여행객, 가족여행객을 위한 테마형 생태체험장, 퍼블릭 골프장, 농·어촌자연산업체험 장 등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 음료(술, 맥주, 주스 등)등을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상품으로 특화시켜 나간다.

다섯째, 북제주군의 관광지와 관광사업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문화 이벤트가 곁들인 북제주군특산물직판장을 개설 운영하여 관광쇼핑을 활성화한다.

2) 관광수용태세의 개선

첫째, 숙박시설과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업 체인화를 추진한다.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주변경관과 부조화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아울러 우수업소 인증제 및 등급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광숙박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나간다.

둘째, 새로운 관광정보(위치정보, 숙박·관광·예약 등)요구에 부응하는 관광안내시스템 및 안내소를 구축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한다. 북제주군에서 별도의 관광불편해소전화를 운영한다.

셋째, 개별관광객이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및 관광사업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도로교통표지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제고해 나간다.

3)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환경미의 본존과 보호 및 육성

에 입각하여 레저·관광에 관한 생태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적 골프장개발 및 관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지역주민의 협조가 요구된다.

셋째, 관광사업체(숙박, 음식, 운동, 위락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 항공료 인상저지 등에 대해 관광정책을 이끌고 있는 주체(관광행정, 지방의회, 등)가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국내여행경비 500불한도내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

=금강산관광에서 수학여행단에게 지불되는 경비보조를 제주도도 오는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대정부 절충노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의 대대적인 관광서비스 및 친절운동과 더불어 수요의 탄력성을 감안하여 관광지 및 관광사업체의 파격적인 할인정책을 실시해 나간다.

관광객 계층과 관광활동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시설은 외자유치에 의존하고, 소규모 향토적인 관광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사업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4)관광객 유인효과가 높은 관광사업 유치 및 개발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시대의 국민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비교적 방문객 이용도가 높은 관광사업을 유치한다.

예컨대, 해수욕장 편의시설업, 고원캠핑장, 어린이생태체험공원, 청소년자연학습장, 승마장, 마리나, 해중전망탑, 유료낚시터, 육상해수풀장, 희귀동·식물원, 동영상체험관 등

5)지역 이미지 개선을 관광상품 개발

- 향토음식의 빙떡을 프랑스 카나페로 바꿔서 지역 캐릭터로 개발
-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등대 모양의 아이스크림 개발
- 4개 지역 유인등대 및 테마파크 체험학교 운영

- 등대설치 기념사업으로 등대모양의 향토음료(술 와인) 개발
- 손수건, 스카프, 놀이용 카드를 명승지 및 신화의 주인공을 스토리별로 도입하여 기념품 판매, 만화 및 애니메이션 개발 등
- 전설 민담의 생활양식 등 무형적 스토리 이벤트 상품 개발
- 주민 어로활동을 관광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전세대의 관광 인재 교육

6) 체계적인 관광홍보·마케팅

첫째, 북제주군의 트레이드마크 및 표어를 개발하여 유행시킨다.

둘째, 기존의 홍보매체를 과감히 개선시킨다. 북제주군 주체의 농·수·축산물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전국의 농협·수협·축협·감협 등을 통해 관광홍보기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홍보망을 강화해 나간다. 여기서 여행센터를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산물직판홍보를 담당한다.

셋째, 관광시장으로 지역산품을 보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광객 우편서비스 및 고객관리를 지원한다.

넷째, 관광시장의 동향 파악과 상품구매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권으로 북제주군 홍보사무기능을 일부 이전시켜 나간다. 관광협회와 협력체계를 모색한다.

VI. 맺음 말

우리나라는 스피드경제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기관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본사들이 지가가 가장 비싼 수도권 중심지에 입지해 있어 지방의 산업경제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사가 입지해 있는 대도시 시민들에게는 노동기회가 쉽게 제공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대도시에 입지한 기업은 지가상승과 고임금구조로 인해 경영코스트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교통·통신기술이 진전에 의해 자본주의사회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공장이나 기업의 사령부격인 본사가 반드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지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상품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자원이나 소재가 있는 산지에 공장이나 본사 사무실이 있어야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광서비스산업에 더욱 부합되는 논거가 되고 있다.

금후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건설한 기업유치에 의해 자연산업과 연계되어 지역산업으로 위상을 찾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스스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제주군 지역도 어느 지역과 다를 바 없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술했듯이 지역의 청년실업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고, 1차 산업의 감귤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다 북제주군이 단시일에 유독 관광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관광객 수용에 따른 역기능 배제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역경제를 내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를 보임으로 해서 외발적 성찰이 없이, 외자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지역개발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 이에 반해 또 하나의 견해는 기업이 어느 일정 지역에 유치됨으로 해서 그 해당지역은 경제적 혜택을 입는 반면, 지역주민 개개인의 복지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전체 자본주의만이 발전하여 당초의 기업유치의 취지가 무색해 지면서 오히려 자연환경과 경관이 훼손되어 결국 지역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할 경우 개발원칙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을 때 지역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지역의 자원특성을 살려서 지역주민 스스로 역량을 결집하여 내부적 발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관광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기존의 자연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도록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목표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마케팅 강화, 특화 상품 개발, 지역 밀착형 자치행정과 의회활동의 역할도 활성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6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이 선심성 예산이나 방만한 사업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전문가, 지방재정전문가, 소비자단체, 법조계, 각계인사 등 18명으로 구성하는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조직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빨리 분석하여 지방의 특화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 총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